

규제에 대한 우려 속에 모멘텀 약화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9F)	PER (2019F)	ROE (2019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097	1,307,273	0.9	8.6	10.5	1.9	4.1	-9.1	-13.0	-15.0	472	540	139	1,468	8,881
KOSDAQ	696	124,395	2.0	13.9	16.0	1.9	8.0	-13.5	-20.4	-12.9	-125	185	-20	387	2,533
보험	16,711	20,456	0.5	10.5	5.6	-1.1	-1.2	-2.1	-8.3	-20.9	-63	13	-28	26	124
증권	1,768	17,861	0.7	9.0	8.1	5.4	13.3	-4.3	-16.6	-11.0	46	16	34	19	122
삼성생명	86,500	17,300	0.5	11.8	4.4	2.2	-4.3	-6.1	-19.5	-30.5	-10	5	-7	2	19
한화생명	4,440	3,856	0.3	7.0	5.0	3.1	0.0	-8.8	-22.4	-35.7	-3	2	-1	1	4
동양생명	5,520	891	0.4	10.1	3.7	-2.0	-4.2	-15.9	-23.9	-27.4	-1	0	-0	0	1
삼성화재	272,500	12,910	1.0	13.8	7.6	-2.9	-0.7	4.4	8.3	2.1	-16	5	-8	4	21
DB손해보험	67,700	4,793	0.8	6.7	12.6	-5.4	-0.6	7.6	18.4	-4.9	-14	5	-6	6	26
현대해상	40,050	3,580	0.8	6.6	12.1	-6.9	0.9	8.4	19.4	-14.8	-13	2	-5	7	39
메리츠화재	21,200	2,410	1.1	7.5	15.1	-3.6	20.1	17.8	7.3	-9.8	-3	3	-0	4	10
한화손해보험	5,800	677	0.4	4.4	10.4	0.7	1.2	-16.5	-17.5	-28.7	0	-0	-0	0	0
삼성증권	31,150	2,782	0.6	8.4	6.9	10.9	18.2	-3.0	-15.1	-14.9	22	3	7	3	11
미래에셋대우	7,120	4,687	0.6	9.6	6.1	7.1	11.1	-13.7	-23.8	-22.5	19	-3	10	8	55
NH투자증권	13,850	3,898	0.8	10.7	7.4	3.4	16.4	3.4	-12.9	-0.4	0	3	6	2	19
한국금융지주	67,700	3,773	0.9	7.1	12.4	5.1	12.1	-5.2	-28.2	-1.9	5	0	6	3	24
키움증권	85,000	1,878	0.9	9.1	10.7	10.7	14.9	-8.4	-30.6	-3.0	6	5	10	2	14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약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약세를 시현하였음. 우리는 그 원인을 신용카드에 대한 정부 규제가 발표되며 투자자들의 규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및 실손보험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러번의 뉴스가 보도되며 혼란스러운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관련한 정부의 강한 규제가 발표되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보험료 인상이 지연되며 손해율 개선 cycle 시작 시점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음</p> <p>▶기준금리 1.75%, 25bp 인상: 전주 금요일 금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음. 금요일 국고채 금리는 1년물은 0.4bp, 3년물은 0.8bp 상승하였음. 하지만 10년물은 0.8bp 하락하였음. 2019년에는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렵다는 생각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장기채권금리는 하락하였음.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주 주간동향에서 언급하였듯이 단기 금리 흐름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의 금리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임.</p>
증권	<p>증권업종 강세 시현: 전주 KOSPI 및 KOSDAQ이 상승하며 증권업종 역시 강세를 시현하였음. 10월 주식시장 급락이후 증권업종 주가는 4분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반영한 상황이었음. Valuation 부담이 완화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이 반등하였으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 2019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채권평가손실에 대한 우려 또한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p> <p>▶하나금융투자 증가 결정: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투자에 4,976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음. 이로 인하여 하나금융투자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것이고 기업금융 관련 신용한도 확대 및 PBS 서비스 제공등을 할 수 있음. IB&Trading의 영업력이 확대되며 In-house 상품 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지주 차원의 시너지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음</p>

3. 주간지표 업데이트

			Monthly									Quarterly					
	전주	YTD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누계	MoM	4Q17	1Q18	2Q18	3Q18	4Q18 누계	QoQ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8.2	-9.3	12.4	9.0	8.8	10.8	9.6	8.4	-11.9	11.8	13.8	13.9	9.4	9.0	-4.4		
KOSPI	5.3	-1.1	7.5	5.5	5.2	6.1	6.1	5.3	-13.3	6.0	7.0	8.1	5.6	5.7	2.2		
KOSDAQ	2.9	-21.3	4.9	3.4	3.5	4.7	3.5	3.1	-9.6	5.8	6.8	5.8	3.8	3.3	-14.0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9.5	-3.1	11.8	10.8	11.3	11.8	9.3	9.5	2.3	9.8	11.3	11.8	11.8	9.5	-18.8		
KOSPI	4.9	9.1	6.0	5.5	5.7	5.9	4.8	4.9	1.2	4.5	5.4	6.0	5.9	4.9	-17.3		
KOSDAQ	4.7	-13.2	5.8	5.3	5.6	5.9	4.5	4.7	3.4	5.4	5.9	5.8	5.9	4.7	-20.3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81	-1.4	1.85	1.83	1.73	1.85	1.80	1.81	0.3	1.85	1.89	1.85	1.85	1.81	-3.9		
3년	1.90	-22.0	2.12	2.13	1.91	2.00	1.94	1.90	-4.7	2.13	2.22	2.12	2.00	1.90	-10.7		
5년	1.98	-36.0	2.35	2.36	2.10	2.18	2.08	1.98	-10.0	2.35	2.43	2.35	2.18	1.98	-20.0		
10년	2.11	-38.2	2.56	2.57	2.31	2.36	2.25	2.11	-13.5	2.47	2.62	2.56	2.36	2.11	-24.5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5.3	-0.6	6.0	6.1	6.0	6.0	5.6	5.6	-0.0	6.0	6.2	6.2	6.0	5.6	-0.4		
미래에셋대우	11.3	-1.3	12.3	12.4	12.2	12.3	12.0	12.0	0.0	13.2	13.3	12.8	12.3	12.0	-0.4		
NH투자증권	5.9	-0.1	6.4	6.5	6.9	6.5	7.3	6.3	-1.0	6.4	6.3	6.4	6.6	6.8	0.2		
한국금융지주	5.3	-0.5	5.1	5.3	5.4	5.6	5.4	5.4	0.0	5.8	5.7	5.3	5.4	5.4	-0.0		
키움증권	15.4	-1.2	17.9	16.9	17.4	17.4	15.9	16.5	0.6	17.4	17.5	18.2	17.2	16.2	-1.0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보험업종은 시장 정도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결론은 12월 중순이 되어야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인상과 경험통계를 반영한 실손보험료의 실제 인상률은 1월 중순에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직은 보험료 인상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확인된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최근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다만 보험연구원 주체 심포지엄에서 K-ICS 1.0 대비 완화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언급과 듀레이션 매칭 채권 도입에 대해 감독당국이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자본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금주에는 보험업종 자체의 모멘텀보다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완화 가능성 등에 기반한 시장 흐름에 따라 보험업종의 주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증권업종 또한 대외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됨 전주 Valuation 매력과 시장 반등의 기대감이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으며 금주에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에 대한 뉴스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함 전주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채권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였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으며 2019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증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변수는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됨. 지난 2~3년 동안 증권사 이익 증가의 일등공신은 IB 부분의 실적 증가이었음. 우리가 이번에 발간한 전망자료에는 IB 이익 증가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음. 결론은 부동산 금융관련 이익 기여도가 매우 높았으며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형사/소형사 까지 그 영향권에 있었음.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감안할 때 2019년 IB 부분의 실적 증가는 멈출 것으로 생각함 우리는 2019년에는 IB 실적의 증가가 핵심이 아니라 IB 및 Trading 영역에서 파생된 Risk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우리는 기존의 최선호 종목에 삼성증권을 관심종목으로 편입하며 2019년 1월 27일 이후 제재가 마무리 된 이후의 개선 흐름을 기대하고 있음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12월 3일	중국	Caixin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11월)	50.1	50.0
12월 3일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11월)	55.4	55.4
12월 4일	미국	ISM 제조업구매자지수 (11월)	57.7	57.5
12월 5일	중국	중국 Caixin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11월)	50.8	50.8
12월 6일	미국	ISM 비제조업구매자지수 (11월)	60.3	59.1
12월 8일	중국	중국 수입액 (YoY) (11월)	21.4%	15.0%
12월 8일	중국	중국 수출액 (YoY) (11월)	15.6%	10.7%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6년만에 한도 2배로 늘까 (머니투데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음. 하지만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음</p> <p>▶ 혼돈의 IPO 시장...기업은 고민 커지고 투자자는 '로또' 베팅 (인베스트조선) 증시가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가운데 투심(投心)이 갈팡질팡대며 공모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져 기업공개(IPO) 시장이 4분기 들어 혼란에 휩싸였음</p> <p>▶ 금융위 '중금리 대출도 인터넷은행 인가 평가에 반영' (조선비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시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에 대한 기여도도 평가 요소에 포함됨</p> <p>▶ 카드수수료 인하 다음은...긴장하는 보험업계 (파이낸셜뉴스) 보험산업도 카드산업 못지 않게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가 마무리 되어가는 만큼 다음 불뚱이 보험업계로 밀리 예의주시하고 있음</p> <p>▶ 현대해상, 베트남 손해보험사 지분 25% 인수해 현지 진출 확대 (비즈니스포스트) 현대해상은 베트남 비에틴은행보험의 신주 1666만6667주를 현금 취득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음. 취득 후 지분율은 25%임</p> <p>▶ 보름만에 1만명 가입.. 이유 있는 치매보험 돌풍 (머니투데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치매를 보장하는 간병보험을 출시해 보름만에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p> <p>▶ 정영채 사장 "삼성SDS타워 인수...오피스 지속 투자" (더벨) 최근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NH투자증권이 삼성SDS타워 서관(West Campus) 인수전에서도 승전고를 울렸음</p> <p>▶ 'KT화재' 불뚱 된 손해보험사 (아시아경제) 대울배상책임 한도 100억원, 최대 손실 가능액은 DB25억원, 삼성20억원, 현대19억원 등임. 총 8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대응</p> <p>▶ 롯데 금융업 철수의 이면, "매력 떨어진 금융업" (머니투데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연건 1조4000억원 깎는 방안이 나온 바로 다음날 롯데그룹이 금융업 철수를 선언했음</p> <p>▶ 금융위, 금융사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연합뉴스)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확대됨</p> <p>▶ [뜨는 금융상품] "예금보다 좋다" 달려 발행어울 금리 최소 2% 후반대 (뉴스핌) 한국과 미국 금리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높은 금리를 주는 달러화 표시 금융상품 인기가 늘고 있음</p> <p>▶ 보험업계, 베트남시장 확대...제2의 '격전지'로 부상 (연합인포맥스) 국내 보험사들이 베트남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며 '제2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음</p> <p>▶ [단독] 금융위, 손보사 사업비 개편..."저축보험료에 사업비 부과말라" (뉴스핌)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 장기보험료에 붙는 사업비가 많다고 판단, 사업비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음. 특히 만기환급형 상품이 대상임</p> <p>▶ [단독]카드수수료 인하로 자동차보험료도 잡는다 (머니투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훈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동차보험료 카드수수료를 한도를 국민연금 등 4대 의무보험 수준으로 제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음</p> <p>▶ [마켓인사이트] "채권 평가손실 줄이자"...금리상승 대비 나선 보험사들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시중금리가 오를 조짐이 보이자 보험사들이 회계상 '매도가능자산'으로 잡아놓은 수조원여치 채권을 '만기보유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있음</p> <p>▶ 증권사, 부동산 신탁업 도전...중소형사 '합종연횡' 대세 (뉴스핌) 자본력이 있는 지주사나 대형 증권사는 단독으로, 중소형 증권사와 운용사는 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동산 신탁업에 접근하고 있음</p> <p>▶ [단독]내년 실손보험료, 손보 5.9%·생보 8.7% 오른다 (머니투데이) 병·의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손해보험 상품은 평균 5.9%,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8.7% 오를 것으로 보임</p> <p>▶ 매력 부각 되는 해외 주식투자, 증권사 투자자 유치 '시동' (아시아투데이)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사들이 투자 관련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한창임</p> <p>▶ 파월 '비둘기 발언'에 상승세 탄 증권주(서울경제) 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탈환하는 등 최근 국내 증시가 조금씩 반등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증권주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음</p> <p>▶ 부동산 신탁 경쟁 막을랐다 '컨소시엄이 대세' (EBN) 부동산 신탁업이 10년 만에 빗장이 풀리자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들었음</p> <p>▶ 기존 카드까지 혜택 줄인다... (조선비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이미 발급된 카드의 혜택까지 줄이는 방안까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최종구 위원장이 "소비자 혜택은 안 줄인다"고 밝히자 시장에서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p> <p>▶ 보험연구원 '국내 보험사 저금리 사업모델 준비해야' (아주경제) 자산·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솔벤시II'를 도입한 유럽처럼 국내 보험시장도 저금리에 대비한 사업모델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p> <p>▶ [기준금리 인상] 보릿고개 넘는 보험사들, 수익개선 기대감 (이투데이)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보험사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p> <p>▶ 하나금융투자, 3조원대 대형 증권사 발돋움 (이투데이) 하나금융지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음. 이후 증자 전 2조7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당분간 추가 자본 확충 계획(초대형 IB 4조원)은 없다고 밝힘</p>
----	--

7. Global Peers

		현재가	Mkt. Cap.	PBR	PER	ROE	ROA	Performance (%)				
		(Local)	(USD bn)	(FY18F)	(FY18F)	(FY18F)	(FY18F)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097		0.9	8.7	9.9	9.5	1.9	0.0	-9.1	-14.0	-15.0
	보험	16,711		0.7	8.2	6.5	0.5	-1.1	-2.4	-2.4	-7.4	-20.9
	삼성생명	86,500	15.4	0.5	8.1	6.4	0.6	2.2	-5.0	-6.5	-15.6	-30.5
	한화생명	4,440	3.4	0.4	7.0	5.6	0.4	3.1	0.7	-8.5	-20.3	-35.7
	동양생명	5,520	0.8	0.4	9.4	4.7	0.4	-2.0	-2.5	-16.0	-22.9	-27.4
	삼성화재	272,500	11.5	1.0	11.8	8.8	1.4	-2.9	0.0	2.8	7.3	2.1
	DB손해보험	67,700	4.3	1.0	8.0	13.0	1.5	-5.4	0.1	5.8	15.7	-4.9
	현대해상	40,050	3.2	1.0	7.7	14.1	1.1	-6.9	0.5	7.7	15.9	-14.8
	메리츠화재	21,200	2.2	1.2	9.2	13.8	1.4	-3.6	19.1	16.2	5.7	-9.8
	한화손해보험	5,800	0.6	0.6	4.2	11.3	0.9	0.7	-1.4	-16.8	-17.0	-28.7
	증권	1,768		0.7	7.9	8.5	0.8	5.4	3.5	-4.0	-16.1	-11.0
	삼성증권	31,150	2.5	0.6	8.4	7.4	0.9	10.9	17.5	-3.7	-14.0	-14.9
	미래에셋대우	7,120	4.2	0.6	9.1	6.4	0.5	7.1	10.4	-13.4	-23.3	-20.7
	NH투자증권	13,850	3.5	0.8	9.6	8.5	0.9	3.4	12.6	3.0	-12.3	-0.4
	한국금융지주	67,700	3.4	0.9	6.2	14.7	1.2	5.1	10.1	-5.0	-28.4	-1.9
	키움증권	85,000	1.7	1.0	7.4	14.4	1.9	10.7	11.8	-7.8	-32.0	-3.0
일본	Nikkei225	22,351		1.7	16.2	10.4	2.0	3.3	0.5	-1.6	0.8	-1.8
	보험	1,029		0.8	10.8	6.8	0.9	0.9	-4.2	0.7	0.1	-2.9
	Dai-ichi Life Holdings	4,167	26.0	2.3	48.6	4.7	2.6	4.1	-1.3	-3.9	13.7	41.9
	Japan Post Insurance	2,865	15.1	0.8	18.8	4.6	0.1	1.2	5.5	14.9	17.0	8.2
	Tokio Marine Holdings	5,605	35.5	1.0	15.3	7.3	1.1	1.2	3.2	8.4	7.1	10.4
	증권	370		0.8	12.3	4.6	0.2	1.2	-5.8	-4.3	-9.3	-14.8
	Nomura Holdings	511	16.4	0.6	7.1	9.0	0.6	0.1	-1.8	0.6	-10.5	-23.1
	Daiwa Securities	627	9.4	0.8	9.7	8.6	0.6	1.2	-3.0	-6.0	-2.0	-11.4
	SBI Holdings	2,576	5.4	1.3	11.2	11.9	1.2	3.7	-16.2	-16.0	-12.0	9.3
중국/홍콩	Hang Seng	26,507		1.2	11.1	12.9	1.1	2.2	0.1	-4.4	-13.1	-11.4
	상해A주 지수	2,710		1.2	10.6	12.2	1.1	0.3	-3.3	-4.9	-15.9	-21.8
	보험	137		1.2	11.9	10.4	1.7	1.3	-2.7	-1.3	-13.5	-23.8
	China Life	17	80.6	1.3	13.9	9.5	1.1	2.8	6.9	-5.3	-23.8	-31.6
	Ping An Insurance	76	170.9	2.2	12.2	19.5	1.5	1.7	1.0	0.1	-1.8	-6.7
	AIA	64	98.6	2.3	20.1	12.1	2.2	0.2	4.2	-5.7	-10.0	-4.2
	증권	92		1.2	22.3	5.4	1.5	0.6	-1.2	6.4	-15.7	-27.2
	CITIC Securities	15	28.1	1.0	13.9	7.5	1.9	1.1	1.4	3.8	-25.7	-9.4
	Haitong Securities	8	14.5	0.7	12.0	5.9	1.5	0.5	-4.0	17.0	-17.1	-28.4
	Huatai Securities	13	18.6	0.9	13.4	6.8	1.8	2.5	-2.3	10.0	-15.6	-16.8
미국	S&P500	2,760		3.2	16.9	18.8	3.4	4.8	1.4	-4.9	0.9	3.2
	보험	379		1.4	12.1	11.0	#N/A	2.7	2.4	-2.5	-0.6	-5.7
	AIG	43	38.3	0.6	16.1	4.3	0.5	-0.3	0.3	-18.7	-18.8	-27.4
	Metlife	45	44.0	1.0	8.3	11.2	0.8	4.3	6.4	-2.7	-4.4	-11.7
	Prudential Financial	94	38.7	0.9	7.7	11.3	0.6	4.6	-1.2	-4.6	-5.1	-18.5
	증권	186		2.0	13.5	13.8	1.3	2.9	-0.0	-8.3	-10.7	-8.2
	JP Morgan	111	369.8	1.6	12.1	13.6	1.3	4.3	2.0	-3.0	2.6	4.0
	Goldman Sachs	191	73.7	0.9	7.5	13.4	1.0	0.8	-16.0	-19.8	-16.5	-25.1
	Charles Schwab	45	60.5	3.2	18.4	19.4	1.3	1.6	-3.4	-11.8	-21.0	-12.8
유럽	MSCI Europe	121		1.6	13.5	10.4	1.0	1.0	-1.7	-6.1	-7.3	-7.9
	보험	73		1.1	10.6	12.5	0.5	1.6	-1.0	-1.7	-2.2	-4.6
	Allianz	187	89.6	1.2	10.5	11.7	0.9	1.1	1.2	1.6	3.8	-2.6
	AXA	22	59.0	0.8	8.5	8.8	0.5	2.9	-3.0	-1.1	-1.4	-13.0
	Prudential plc	1,541	50.9	2.3	10.3	21.6	0.7	1.4	-1.7	-11.2	-16.3	-19.2
	Munich Re	192	32.5	1.0	11.4	8.9	1.1	0.9	1.7	3.3	6.1	6.2
	증권	62		1.0	13.0	6.5	0.3	-0.7	-6.4	-13.7	-14.3	-21.9
	UBS	14	52.2	1.0	10.1	9.6	0.5	0.5	-4.7	-13.6	-13.4	-23.4
	Credit Suisse	12	30.1	0.7	11.6	5.8	0.3	-0.5	-9.0	-18.8	-23.5	-31.3
	Deutsche Bank	8	18.9	0.3	23.5	0.8	0.1	-1.3	-9.9	-16.9	-14.3	-49.2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06	1.834	1.803	1.769	1.851	1.853	-2.8	0.3	3.7	-4.5	-4.7
		3 Year	1.895	1.912	1.932	1.990	2.192	2.134	-1.7	-3.7	-9.5	-29.7	-23.9
		5 Year	1.975	2.007	2.045	2.177	2.485	2.347	-3.2	-7.0	-20.2	-51.0	-37.2
		10 Year	2.110	2.165	2.222	2.365	2.695	2.467	-5.5	-11.2	-25.5	-58.5	-35.7
일본	국고채	1 Year	-0.144	-0.144	-0.144	-0.114	-0.135	-0.145	0.0	0.0	-3.0	-0.9	0.1
		10 Year	0.092	0.100	0.122	0.111	0.035	0.048	-0.8	-3.0	-1.9	5.7	4.4
중국	국고채	1 Year	2.502	2.553	2.890	2.905	3.125	3.834	-5.1	-38.8	-40.3	-62.3	-133.2
		10 Year	3.380	3.417	3.538	3.609	3.615	3.902	-3.7	-15.8	-22.9	-23.5	-52.2
미국	국고채	1 Year	2.678	2.655	2.639	2.443	2.205	1.732	2.3	3.9	23.5	47.3	94.6
		10 Year	2.988	3.039	3.123	2.855	2.855	2.405	-5.1	-13.5	13.3	13.3	58.3
유럽	국고채	1 Year	-0.563	-0.557	-0.606	-0.533	-0.571	-0.611	-0.6	4.3	-3.0	0.8	4.8
		10 Year	0.313	0.340	0.369	0.346	0.372	0.427	-2.7	-5.6	-3.3	-5.9	-11.4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